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 분석」 토론문

김 용 신 (서울교육대학교)

-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주체가 될 예비 교사들인 교·사대생들을 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강좌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고 보완책을 강구하였다는데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짐.
- 사대의 경우 다문화교육 강좌를 수강한 일반학과 학생들도 교직 혹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비 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음.
- 다문화교육 강좌가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다문화교육의 실제적 진전을 요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함. 특히, 대학유형별, 권역별, 성별, 다문화 봉사경험별, 차이를 분석하여 유의성을 제공한 점, 교육내용 및 방법 선호도를 파악하여 다문화 교육 교수에의 방향성을 가늠한 점 등은 연구의 주요 내용이면서 연구자가 결론에서 제시한 개선 보완점의 합당한 근거로 여겨짐.

1. 질 문

-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5개 영역 구성과 23개 문항의 조사 도구와의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어떻게 확보하였는가? 이철현(2013? 2007?)의 연구와 다문화 전문가 3인의 검토로 조사 영역과 도구를 결정하였는데, 별도의 개별 문항 간 상관관계 혹은 문항 전체의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는가? 혹은 측정도구 구축을 위한 사전 문항 검사를 거쳤는가? 타당도와 신뢰도의 확보 절차에 관한 질문임.
- 위와 관련하여 다문화적 기회균등 문항은 구체적으로 몇 번 문항들인가? 다문화적 기회균등 영역은 다문화 봉사 경험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학 유형별, 권역별, 변인별 분석 등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음.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무엇인가?
- 교대의 다문화교육 강좌의 긍정적이고 강한 효과는 성별 변인과 다문화 봉사 경험 변인의 영향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교대와 사대의 성별 비율과 다문화 봉사 경험 비율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특히, 성별 변인의 효과라면 교대와 사대의 구분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임.
- 마찬가지로 논리로, 권역별 분석에서 충청권은 교대만, 전라권은 사대만 분석 대상이 되어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와 유의미함과 그렇지 않음이 결정된 것은 아닌가? 권역 즉 지역 변인은 과연 유효한가의 질문임.

- 결론 부분에서 경상권, 전라권의 다문화교육 강좌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과 관련 하여 지역 특성상 다문화에 대한 노출이 이미 진행되어 다문화 감수성이 형성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해석은 통계적 논증을 거친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의 추정인가?

2. 비 평

- 연구 대상 대학교의 선정이 26개교 지원 대학 중 15개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10개교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음. 5개교가 자료 부적합으로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표준화된 방법과 측정도구를 적용한 연구결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추가적 설명이나 다문화교육 강좌의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조사 도구의 이론적·경험적 구축 과정이 선행연구 분석과 특정 연구자의 척도 선정,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으로 타당한 문항 지표들이 구성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과학적 조사 도구의 구축을 위해서는 엄밀한 개념화 절차를 거친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의 구성 영역과 문항 지표의 구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연구 방법이 주로 사전사후 평균 차이분석인 t-test 기법이 적용되었는데 실태 국면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할 수는 있겠으나 방향 국면을 표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산분석, 경로분석, 요인분석 등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이 제시될 수도 있음. 물론, 이것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자의 전적인 선택 사항임.

- 연구 대상 대학교의 학생들을 교대생, 사대생, 일반학과생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으로 분리되는 학교급별 예비 교사들의 감수성 및 태도 차이와 교직에 대한 지향 심도 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다문화교육 강좌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목적에 더 부합될 수도 있음.

- 대학 유형별 분석과 권역별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인별 분석과의 연계와 추가적인 빈도분석과 부분상관관계 분석 등이 필요함.

- 다문화교육 강좌를 교직필수 과목화하여 효과를 제고하자는 연구자의 제언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다문화화의 진행 심도와 교·사대의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 볼 때, 교육학과 교과교육과의 균형, 교직 지향 대학생의 소양 및 선택 존중,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양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며, 교직실무 혹은 각 교과교육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문화하여 교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 대학 다문화교육 강좌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현장 사례 중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대학별 일제 전수 조사의 중요성 제언 등은 의의 있는 연구자의 관점 및 제언으로 판단됨.